**DOOSAN ART SCHOOL**

2010. 6. 9 (WED)

# < 아트어드바이저 정윤아의『현대미술 강좌』>

## 12. 아르테 포베라(Arte Povera/Poor Art)

**시기:** 1960년대 중반 - 70년대
**주요작가:** 마리오 메르츠(Mario Merz 1925-2003)
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(Michelangelo Pistoletto 1933-)
야니스 쿠넬리(Jannis Kounellis 1936-)
루치아노 파브로(Luciano Fabro 1936 - 2007)
알리기에로 보에티(Alighiero Boetti 1940–94)
쥬세페 페노네(Giuseppe Penone 1947-)

### 1. 시대적 배경

가. 미국 미술에 대한 저항과 영향
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팝 아트와 같은 상업주의적인 미술에 대한 저항감이 반영되어 사물과 미술의 간격을 실험하던 미국 미니멀리즘의 영향

나. 프랑스 누보 레알리즘의 영향
다다의 정신을 부활시켜 일상용품을 미술에 끌어들이고자 한 누보 레알리즘에서 더 나아가 살아있는 생물, 소리 등을 미술 재료로 사용

다.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반항
1960 년대는 히피 문화 등 전반적으로 물질적인 것, 기존의 틀 등에 반항하는 문화가 번성. 이러한 문화의 정점을 이룬 것이 프랑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봉기된 1968 년 5 월 혁명. 아르테 포베라의 미술가들도 이러한 반항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.

### 2. 아르테 포베라의 의미

'아르테 포베라'라는 용어는 이태리 미술비평가이자 전시기획자인 제르마노 첼란트(Germano Celant 1940-)가 1967년에 일상에 기반한 시적(詩的) 효과를 창조하고자 단순한 방법으로 작품을 만드는 일군의 젊은 이태리 미술가들을 기술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.

아르테 포베라에 대한 뛰어난 글과 핵심적인 몇 개의 전시들을 통해 첼란트는 이 젊은 미술가에게 집단적인 정체성을 부여. 이 정체성의 결정적인 배경은 개별적인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미술가들의 작업이 쇳조각, 끈, 합판, 헝겊, 비닐 등 폐품을 위주로 한 싸구려 재료 사용을 즐긴다는 공통점에 기반.

이들은 폐품과 같은 산업적으로 생산된 재료 이외에도 돌, 흙 등 대지의 산물이나 습기, 소리 같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미술 재료로 사용.

이태리어 아르테 포베라(Arte Povera)는 영어의 Poor Art에 해당. 즉 '가난한 미술'을 의미. 이는 미술의 질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미술을 할 수 있다는 의미, 또는 싸구려 재료를 사용한 미술이라는 의미를 지님. 이 운동은 1970년대 초반에는 유럽 전역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으며, 특히 이태리 이민자 인구가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운동으로 번지게 됨.

**-알리는 글-**

마지막 강의날인 **6월 23일**에 **오전 10시**부터 14회와 15회 강의가 연달아 진행됩니다.